

‘속출하는 대출 난민’ 서민부터 고통...규제 실효성 의문

정부 “실수요자라도 상환능력 있어야 대출 가능”
전문가 “그럼 고소득자만 대출 가능한가” 비판
결국 소득 높고 자산있는 사람만 ‘빚투·영끌’

금융당국이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고 연일 강조했지만 전문가들은 ‘공염불’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실수요자 구분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정부가 적극 나서지 않고, 오히려 은행을 통해 대출 증가율을 억제하는 데만 급급하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는 아무리 실수요자라도 돈 값을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선을 그은 상

태다. 결국 소득 높고 재산 많은 차주만 돈을 빌릴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0일 “대출이 꼭 필요한 수요자들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실수요자 대출은 상환능력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고

동의를 했다. 즉, 돈이 정말 필요한 실수요자라도 상환 능력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문제는 이런 정부 기조가 금융 접근성에 대한 양극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상환능력이 좋다는 것은 그만큼 고소득이고 재산이 많다는 의미다. 반면 취약계층은 대체로 소득이 낮고 담보력도 낮다. 정부 기조 대로라면 ‘빚투(빚내서 하는 투자)’와 ‘영끌(영혼까지 끌어오는 투자)’도 돈과 자산이 많은 사람만 할 수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정부의 주장은 결국 재산이 있거나 소득이 높은, 이른바 담보력이 높은 사람한테만 돈을 빌려준다는

것”이라며 “돈이 급한 취약계층들에게 돈을 잘 빌려줘야 하는데,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부 전문가는 실수요자 구분이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본다. 그간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실수요자 구분이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당국은 관리하기 편하다는 이유로 총량규제로만 대응하고 있다”며 “이는 실수요자 피해가 크다는 점에서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실수요자 구분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은행은 대출 용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자료 제출을 강화하고, 금융당국도 이런 장치들이 은행에 마

련되도록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자금조달 계획을 통해 차주의 자산구조를 모두 파악할 수 있다”며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면 여유자금이 있는 차주들을 걸러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올 하반기 들어 갑자기 대출 규제를 단행한 것도 ‘대출 난민’을 만든 주요 원인이다. 실제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가계부채가 급증할 것을 미리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올해 하반기부터 뒤늦게 규제에 나섰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권말기가 되자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금융규제로 잡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

심도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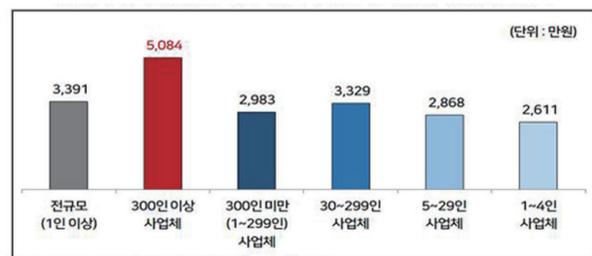
김소영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너무 갑작스럽게 대출을 죄다 보니 실수요자들이 제대로 대출을 못 했다”며 “천천히 적응할 시간을 주면서 (대출 증가율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세돈 교수는 “정부가 대출 규제에 집값을 잡으려고 한다”며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출 규제에 집값이 잡힐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제시한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 연 5~6%대도 경제적인 근거가 없다”며 “지난 20년 동안 가계부채 증가율은 금융위기 때 외에 6%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다. 모두 7~9%대였다”고 주장했다.

최이슬기자

대출초입 3391만원...경총 “대기업, 日보다 월등히 높아”

300인 이상 기업, 초입 평균5084만원 중소기업과 격차 커



사업체 규모별 정규직 대출초입 평균. (그래픽=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우리나라의 대출 정규직 초입은 3391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300인 이상 기업의 초입 평균은 5084만원으로 중소기업과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기업의 경우 대출초입 수준이 일본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원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우리나라 대출초입 분석 및 한·일 대출초입 비교와 시사점’에 따르면 국내 대출 정규직 신입근로자 초입(초과급여 포함 임금총액·지급해 기준)은 평균 3391만원으로 산출됐다.

기업 규모별로 국내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 대출초입 평균은 5084만원(초과급여 포함 임금총액)으로 가

장 높았다.

반면에 300인 미만(1~299인) 사업체의 정규직 대출초입 평균은 2983만원으로 30~299인 사업체는 3329만원, 5~29인 사업체는 2868만원이었고 5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2611만원으로 300인 이상 사업체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초과급여를 제외한 임금총액 기준으로도 300인 이상 사업체의 정규직 대출초입은 4690만원이었다. 5인 미만 사업체 정규직 대출초입은 2599만원으로 300인 이상 사업체의 55.4% 수준이었다.

일본과 대출초입(초과급여 제외 임금총액) 수준을 비교한 결과(구매력 평가 환율 적용시·2019년 기준)에서는 모든 규모에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높고 규모가 커질수록 그 차이가

더욱 커졌다고 경총은 분석했다.

금액 기준으로 10인 이상 기업의 대출초입은 우리나라가 3만6743달러, 일본이 2만8973달러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26.8% 높았다.

특히 대기업(한국 500인 이상·일본 1000인 이상)의 경우 우리나라(4만7808달러)가 일본(2만9941달러)보다 59.7% 높았다.

환율과 무관하게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대출초입 수준을 비교한 결과에서도 전체 규모(10인 이상)에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높았고 특히 대기업에서는 우리나라(111.9%)가 일본(71.0%)보다 40.9%포인트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규모별 대출초입 격차는 10~99인 사업체 상용직 대출초입을 100으로 볼 때 일본 대기업은 113.4인 반면 우리나라 대기업은 151.7에 달해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도 우리나라가 더 컸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우리나라의 대·중소기업간 대출초입 격차는 일본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우리 대기업의 대출초입 수준이 일본보다 월등히 높은 것에 주로 기인한다”며 “우리 대기업도 일률적이고 연공에 기반한 임금 설정이 아닌 인성보다는 일의 가치와 성과에 따른 합리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임금체제로 바뀌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유나기자



‘LG 프라엘 인텐시브 멀티케어’ 출시

LG전자가 피부 탄력을 위한 5가지 핵심 기술을 한 곳에 담은 ‘LG 프라엘 인텐시브 멀티케어(모델명: BLP1)’를 출시한다. 신제품은 피부 탄력과 진정엔 물론이고, 화장품의 다양한 영양 성분의 흡수까지 높여주는 복합 탄력 관리기이다. 집에서 전문적인 피부관리를 원하지만 목적에 따라 여러 종류의 피부 관리기기를 번갈아 사용해야 하는 고객들의 불편을 해결하는 올인원(All-in-one) 제품이다.

가계대출 억제 가능할까...5% 이하는 18년간 단 한차례

가계대출 증가율 5% 이하 2003년 이후 2019년 단 한 차례

정부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연간 6%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가계대출이 6% 이하로 늘었던 때가 역대 네 차례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5% 이하로 관리된 때는 통계치를 작성한 2003년 이후 2019년 단 한차례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볼 때 연 5~6% 목표를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4일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은행과 비은행을 합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인 ‘가계신용’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관련 통기가 작성된 2003년 이후 가계대출이 5% 이하로 증가했던 때는 2019년(4%)이 유일했다. 6% 이하로 범위를 넓혀도 2004년(5.3%), 2012년(5.2%), 2018년(5.6%), 2019년(4%) 등 네 차례에 불과했다. 내년 가계부채 관리 목표인 4% 이하로 떨어졌던 때는 단 한 번 밖에 없다.

반면 10% 이상 증가율을 기록했던 때는 2006년(11.8%), 2015년(11%), 2016년(11.6%), 2021년 2분기(10.3%) 등 네 차례였다.

가계대출은 2019년 4%로 내려갔으나 2020년 8.4%, 2021년 1분기 9.5%로 늘었다.

특히 2분기에는 10.3% 늘면서 2016년(11.6%)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8.6%,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12.5% 증가했다. 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를 예고하고, 한국은행의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 은행의 대출금리 인상 등에도 부동산 매수 심리가 이어지면 서 가계 대출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이 증가하고, 주식시장에서 ‘빚투(빚 내 투자)’ 열풍까지 더해진 결과다.

여기에 규제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비은행권으로 가계대출 수요가 이동 되는 ‘풍선효과’를 보이고 있고,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 등에 따른 수익 추구 성향이 여전한 점도 원인이다.

실제로 올 2분기 가계대출 중 비예금은행 증가율은 7.7%로 지난해(2.4%)에 비해 크게 늘었다. 올해 초부터 당국이 가계대출을 옥죄면서 대출 수요가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비은행권으로 옮겨간 영향이다.

비예금은행의 대출 증가율을 보면 2016년 17.1%로 사상 최대 증가한 후 2017년 7.8%에서 2018년(2.2%), 2019년(-1.4%), 2020년(2.4%)로 2%대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은행권 대출규제 강화로 2021년 1분기(4.9%), 2분기(7.7%)로 크게 늘었다.

비은행 중에는 상호저축은행이 29.7%나 급증했고, 상호금융과 신용협동조합도 각각 8.1%, 2.1% 늘었다. 반면 새마을금고는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 우체국은 0.7% 줄었다.

그동안 가계대출의 연간 증가율을 5~6%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해 온 당국이 목표를 6%대로 낮추는 등 한발 물러섰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올 상반기 가계대출이 10%대 가까이 늘어났는데 이를 6%로 줄이려면 남은 4분기에만 대출이 전혀 늘지 않아야 하는데 실수요자까지 묶어야 하는 것이라 애당초 불가능한 숫자다.

정부는 이달 중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늦추고 대출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금년 6%대 증가율을 목표로 상환능력 내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당초 5~6% 수준 보다는 목표치가 낮아진 것이다.

반면 한은은 부동산 가격 등 자산가격 상승 기대 등에 따른 수익추구 성향이 줄어들지 않는 이상 가계대출을 줄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올해 가계 대출의 상당수가 전세자금 대출 등 실수요자 대출이라는 점에서 대출총량을 줄이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무조건적인 총량규제를 하기 보다는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을 풀어주고 나머지 대출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슬비기자

‘국제 유가가 강세’ 휘발윳값, 1700원 돌파 가능성 주목

전국 평균 1648.4원, 전일 대비 2.4원 올라

국제 유가가 70달러 중반을 넘어가는 등 3년만에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같은 강세에 국내 휘발유 가격도 리터당 1700원을 넘어설지 주목된다.

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0당 1648.4원으로 전일 대비 2.4원 올랐다. 9월 넷째 주 평균 가격은 0당 1642.6원으로 전주보다 0.8원 상승했다.

국내 가격이 최근 상승 전환한 것은 국제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9월 3주 기준 국제 휘발유 가격(92RON)을 보면 전주 대비 2.26달러 오른 배럴당 83.9달러를 기록했다. 통상적으로 국내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3주 정도가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제 가격 상승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국제 유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 또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일 대비 0.85달러(1.1%) 상승한 배럴당 75.88달러를 기록했다. 2일 연속 상승하며 이변주 WTI 가격은 2.6% 올랐다.

이에 따라 업계 일각에선 국내 휘발유 가격이 0당 1700원을 돌파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최근 국제 유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상승폭은 크지 않다. 이 때문에 현재까지 1700 돌파 가능성이 적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대한석유협회 조성범 팀장은 “최근 국제 유가가 오르고 있어 국내 가격 또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상승폭이 크지 않



아 국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현재 1650원 수준인 국내 휘발유 가격이 1700원대에 이르러면 연말까지 국제 가격이 지속 상승해야 한다”며 “현재로서 그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